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事事不如意
수심 속에 취했다가 다시 깨어나	愁邊醉復醒
새가 날아가듯 이 몸은 덧없고	一身如過鳥
그 많던 계획은 마름들 같네	百計似浮萍
經史를 배 속에 너무 채우지 마라	經史莫壓腹
才名은 공연히 자기 몸 괴롭힌디	才名空苦形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생각이니 허라	毗思高枕睡
꿈에나 순임금 만나 말을 나뉘 보리라	廣散夢處庭 <sup>44)</sup>

세상과 인간 그 모두를 우습게 보던 壯心의 세계는 찾아볼 수 없고 人間 金時習의 自嘆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이르러서는, 時事的인 것뿐만 아니라 家庭的인 悲劇에도 크게 傷心하였던 것 같다. 그가 세상에 내려기 살 수 없는 다섯가지 이유를 自述한 이른바 五不可論<sup>45)</sup> 가운데서도 그 세가지가 妻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두가지가 糊口策에 관한 것이다.

오십이 되고시도 자식 없으니	五十已無子
남은 생애가 가련하기만 하구나	餘生眞可憐
어떻게 秦運 否(비)運을 점칠 수 있겠는가	何須占秦否
사람도 하늘도 원망하지 않겠소	不必怨人天
고운 해가 창호지에 밝게 비치니	麗日烘窓紙
깨끗한 티끌이 지리에 날리네	靑塵萍坐篋
늪은 해에 바릴 것 별로 없으니	殘年無可願
먹고 사는 것일랑 편할대로 맡기려네	飲啄任君便

이에 이르러 모든 것은 끝나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헛되이 功名에 뜻을 두었다가 진흙 속에 기어다니는 거북이 꼴이 된 자기 처지를 후회하던(“早歲功名浪自期 此身端合曳沙龜”)<sup>47)</sup> 그러한 狀況도 아니었다. 功名과 學問 같은 것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으며 老衰한 一身이 虛脫을 더할 뿐이었다.

經書 이제 내던진 지	經書今棄擲
벌써 몇년 지났구나	已是數年餘
게다가 다시 바람의 간사한 것 펄박하다가	況復風邪逼
그 때문에 이(齒)와 머리털이 들성해졌네	因成齒髮疎
한 兼이 거듭하여 둘로 보이코	奇爻重作二
“兼”字가 化해서 “魚”字로 보이네	兼字化爲魚
눈 속에 하늘을 멀리 바라보니	雪裏看天際
날으는 모기가 大空에 가득했네	飛蚊滿大虛 <sup>48)</sup>

44) 卷十三「感懷」第二

45) 卷二十一「上柳襄陽陳情書」

46) 卷十三「自嘆」

47) 前出 卷一「漫成」第二

48) 卷十四「目差」

人間的인 그 모든 것이 破綻에 直面한 悲劇의 章 바로 그것이다.

後世에 와서 金時習은 이 덕분에 마치 節義의 化身처럼 崇仰되었고 到處에 그를 모시는 祀堂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는 在野에서 處士의 方式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矜持와 名分을 주기 위하여 企圖된 政治的 作意의 一端에 지나지 않는다. 士類들이 官界에의 進出 意欲을 自制케 하기 위한 最少限度의 保障策으로 마련한 것이다. 制限된 政治舞臺에서 支配層의 地位確保를 永續化하기 위해서는 不得已한 對應策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의 붓끝으로 그려진 金時習의 面貌도 事實과 다른 方向으로 做作되기 일쑤여서 현재까지 傳하고 있는 그의 史傳的인 記錄도 信憑性이 稀薄하다. 그의 自叙行狀이나 다름없는 上柳 襄陽陳情書가 그리하고 栗谷이 지은 本傳도 그의 死去後 90年만에 이룩된 것이리는 사실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自己 實現을 일삼아 온 그의 詩世界를 통하여, 그의 人聞境涯와 作家的 意識世界도 함께 檢證하는 번거로움을 결들이게 되었다.

### 3) 詩小說의 實現

現實속에서 굴뚝거리고 있는 自身の 모든 것을 詩로써 實現한 그는, 現實에서 이룩하지 못한 理想과 꿈과 浪漫도 詩와 노래로써 實現하였다. 그것이 金鰲新話다. (南炎浮洲志만 詩가 보이지 않음)

金時習이 만약 金鰲新話を 製作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영영 野說이나 傳記 등에서 奇人이나 乞僧의 모습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醉遊浮碧亭記,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 등 다섯 篇으로 된 傳奇集 金鰲新話を 製作함으로써 우리나라 小說史에 新紀元을 樹立하였다. 이 책은 그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게 되었다가 崔南善이 日本에서 逆輸入하여 1927年「啓明」19호에 全文을 收錄 解題함으로써 쉽게 얻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간에 얽힌 事情도 알게 되었다. 崔南善은 그 解題에서

綺語艷聞의 此書를 撰함이 실로 偶然함 이념을 짐작할지니라 그러나 現存하는 것만으로는 金鰲新話란 결코 卓越한 大作이란 것 아니며 先儒의 說과 가치 明初 瞿佑의 剪燈新話を 倣한 一傳승니, 그 體制와 措辭上에서 뿐 아니라, 立題命意와 取材設人에까지 剪燈新話を 藍本으로 하얏다 할 것이며, 더욱……

이라고 하여 金鰲新話を 「綺語艷聞」인 戲作으로 보았다. 作者인 金時習은 그의 「題金鰲新話」<sup>49)</sup>와 「題剪燈新話後」<sup>50)</sup>에서 그의 所懷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먼저 「題金鰲新話」를 보면

陋屋에 방석 자리 오히려 따뜻하고  
창가에 비친 梅影 달이 막 밝았구나

矮屋靑氈暖有餘  
滿窓梅影月明初

49) 卷六

50) 卷四

등불을 돌우고 단정하게 앉아서	挑燈永夜焚香坐
세상에서 못보던 책 한가로이 짓는도디.	閑著人間不見書
玉堂에서 글 할 마음 없어진지 오래고	玉堂揮翰已無心
松窓에 앉았더니 밤은 정히 깊었구나	端坐松窓夜正深
구리병에 잨 꽃으니 책상은 깨끗한데	香插銅瓶鳥几淨
風流스런 奇話를 자세히 더듬어본디	風流奇話細搜尋

여기서 우리는 金鰲新話의 創作意圖와 그 零圍氣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뜻을 잃은 作者가 世俗의 人間들이 보기 어려운 기이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詩的 零圍氣로 엮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鰲新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지는 剪燈新話의 讀後感詩인 「題剪燈新話後」에서도 明瞭하게 읽을 수 있다.

山陽의 君子가 베틀과 북을 놀려	山陽君子弄機杼
제 손으로 등불 돌워 기이한 말 써 보네	手剪燈火錄奇語
文이 있고 騷가 있고 記事도 있어	有文有騷有記事
遊戱와 逸살이 차례와 순서 있네	遊戱滑稽有倫序
이름답기 꽃 같고 변화롭기 구름같아	義如春葩變如雲
풍류로운 이야기거리 한번에 그만이라	風流話柄在一擧
처음엔 허황하나 뒷맛이 감칠래라	初若無憑後有味
아름다운 경지는 시탕 맛 같네	佳境恰似甘蔗芭

가 그것이다. 風流와 이야기가 한데 어울려 甘味로운 佳境에 到達한 詩的 零圍氣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金鰲新話는 詩로서 엮은 怪奇譚이다. 文章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는 散文이지만 儷駢套가 混雜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詩的이다. 스스로 「四六文章已不高」<sup>51)</sup>라 하고 있으면서도 儷駢套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浮華한 修辭로 一貫한 나머지 對象을 寫實的으로 描寫하지 못하고 美化하는 데서 그치고 있어 小說로서의 寫實性이 阻却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는 그 舞臺를 幻夢으로 裝置하여 이를 帳幕으로 隱蔽하였다. 이는 물론 傳奇가 恒用하는 手法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帳幕을 장치함으로써 그의 虛構의 自我를 實現할 수 있었다. 이러한 幻夢의 帳幕을 장치할 수 있는 自由가 許與되지 않았다면 그는 처음부터 小說의 製造를 斷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天地 밖의 天地를 認定하지 않고 鬼神의 存在를 스스로 否定한 그가 이러한 장치를 企圖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重大한 冒險이 아닐 수 없다. 金鰲新話를 가리켜 이른바 世俗小說로 斷定한 主張도 있는 듯하나<sup>52)</sup> 이것은 朝鮮後期에 대두한 世俗의 逸話의인 小說과는

51) 卷八「自然吟三首」第一

52) 李愷淳, 金鰲新話에 나타난 人鬼交歡小說의 類型的 考察(李崇寧先生 古稀記念國語國文學論叢 p. 57)

스스로 區別되는 限界가 明白하다.

傳奇의 세계는 非日常의 非現實의 이어서 現世의 非情한 對決이나 葛藤도 없고 다만 神奇와 優雅 그리고 甘味로운 것으로 차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는 作者 자신의 慰安物로서도 좋으려니와 讀者에게 흥미를 끌 수 있고 또 감명도 줄 수 있다.

金鰲新話는 梅月堂 金時習의 原初의 自我가, 破綻한 社會의 自我를 破壞・克服하여 모처럼 浪漫的인 創造的 自我를 이룩한 場面이다. 그는 現實에서의 障壁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이를 破壞・克服하기 위하여 虛空으로 飛翔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렇게하여 到達한 세계가 바로 그가 장차한 幻夢이 세계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幻夢의 베일속에서, 그에게 가장 缺乏되고 있었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고 地上에서 이룩하지 못한 그의 蕰抱를 마음껏 펼 수도 있었다.

萬福寺楞蒲記는 사랑을 노래한 作品이다.

한 그루 배꽃나무 의로움을 달래주나  
 휘영청 달 밝으니 허송하기 괴롭구나  
 푸른 꿈 홀로 누운 호젓한 들창가로  
 어느 집 이쁜 님이 통소를 불어주네

一樹梨花伴寂寥  
 可憐孤負月明宵  
 靑年獨臥孤窓畔  
 何處玉人吹鳳簫

의로운 저 비취는 제 홀로 날아가고  
 작 잃은 원앙새는 맑은 물에 노니는데  
 棋譜를 풀어보며 인연을 그리다가  
 등불로 걸치고는 창가에서 시름하네

翡翠孤飛不作雙  
 鴛鴦失侶俗晴江  
 誰家有約敲碁子  
 夜卜燈花愁倚窓

(등불의 明暗으로 吉凶을 점치는 것)

로 시작하여 全篇이 사랑의 詩로 가득차 있다. 달콤한 傳奇의 世界가 아니고는 도달할 수 없는 낭만이 珠玉 같은 詩篇으로 點綴돼 있다. 그의 詩集에서는 물론이요 어떤 詩人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 艷情詩의 세계가 여기에 펼쳐져 있다.

사랑이란 삶에 있어서 必須의이고 價値있는 經驗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것을 超越할 수 없다는 限界 때문에 그는 일찌기 사랑을 노래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金鰲新話에서 誇示한 그의 長篇 能力은 詩의 수준에 있어서도 梅月堂集에 傳하는 다른 詩篇에 비하여 결코 貶下될 것이 아니다. 金鰲新話가 金鰲山 定着期에 쓰여진 것이라면, 비교적 安定을 되찾은 그의 生活에서 좋은 詩를 生産할 수 있는 可能性은 결코 우연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李生窺牆傳도 사랑의 詩篇이다. 李氏子와 崔家娘이 和答한 사랑의 노래는 可謂 艷情의 極致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 집 도련님고

路上誰家白面郎

푸른 것 넓은 띠가 버들 세로 비쳐오네.	靑衿大帶映垂楊
이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의 새비되면	何方可化室中燕
주렴을 사뿐 걷어 단장 위를 넘어가리.	低掠珠簾斜度櫺
무산 열 두 봉에 첩첩이 쌓인 안개	巫山六六霧重回
반쯤 들난 봉우리는 붉고도 푸르러라	半露尖峰紫翠堆
이몸의 외론 꿈 수고롭게 하지 마오	惱却襄王孤枕夢
구름 되고 비가 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肯爲雲雨下陽臺

士君子로서는 감히 그 犯越을 꿈도 꾸지 못할 境界를 創造한 이 浪漫的 世界는 또 다른 次元에서 새로운 評價가 있어야 할 것이다. 李生과 崔娘의 現世에서의 離別은 지극히 日常的인 것이며, 幽明間의 交接도 이미 地上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限界 그것을 超克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마련한 裝置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崔娘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紅巾賊의 侵入과 같은 것도, 이러한 戰亂을 가져 온 必然的인 契機가 說明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戰亂을 克服하려는 意志 같은 것도 전혀 露出되고 있지 않다. 이는 오직 幽冥의 세계로 移入하기 위하여 제조한 架橋의 구실 밖에 더하는 것이 없다.

醉遊浮碧亭記는 그의 強烈的 歷史意識篇이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에 눈물 지으며 歷史속의 賞君을 追想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그는 優雅한 사랑의 노래를 잃지 않고 있다.

양대에서 비운 님 다만 일장춘몽인기	雲雨陽臺一夢間
가신 님 어느 해에 통소 불고 돌아오리	何年重見玉簫還
대동강 푸른 물결 비록 무정하지마는	江波縱是無情物
님을 여윈 저 곳으로 슬피 울며 흘러가네	嗚咽哀鳴下別灣

다만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것에도 쉽게 陶醉할 줄 모르는 그의 정신 세계다. 日常的인 沒頭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는 풍통하게 醉한 상태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깨어있는 醒醒한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 理想과 現實의 乖離 속에서 一生을 放浪으로 일삼는 그였지만,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빠져 들어가지 못하는 意識世界의 한 단면을 읽게 해준다.

南炎浮洲志와 龍宮赴宴錄에서 그는 龍宮과 炎浮洲를 設定하였다. 天地 밖의 天地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鬼神을 否定하고 因果論의 輪廻說을 拒否한 그가, 地獄이나 다름 없는 炎浮洲와 龍宮을 設定한 것은, 一見 그 思想體系의 乖離를 드러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炎浮洲나 龍宮은 傳奇에서 빌어 온 裝置에 지나지 않는다. 天地 밖의 天地를 認定하지 않는 그의 信念은 南炎浮洲志에서도 事實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注目하여야 할 것은 南炎浮洲志에서 보여 준 作家 意識이다. 現實的으로는 邪道로 斷定한 佛敎에 대하여 窮極의 으로 그 敎示의 機能만은 認定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現實世界에서는 다하지 못한 平素의 蘊抱를 이 作品을 통하여 아낌없이 開陳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龍宮赴宴錄은

비록 그것이 龍宮에서 있었던 事實로 채워져 있으나 全篇의 대부분은 사랑의 노래와 詩로써 充滿되어 있다.

이상으로 보아 金齋新話는, 그의 사랑과 꿈과 理想을 詩로써 實現한 傳奇集으로서, 그의 詩的 表現이 이룩한 또 하나의 세계가 될 것이다.

### 3. 思考와 感覺樣式

文言으로 中國詩를 體驗한 우리나라 詩人들에게 있어서는 詩的 表現의 工具로서의 言語即 中國語에 대하여 疎遠하므로 詩語 自體의 視覺的 意味論的 聽覺的 文法的인 여러 側面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鈍化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漢詩에서 容易하게 發見할 수 있는 것은, 詩語 가운데서 가장 常識的인 表現으로 나타날 수 있는 思惟와 感覺의 概念과 方法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的 文化的 環境에 대한 理解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接近은 곧 韓國 漢詩의 性格을 究明하는데 있어 중요한 作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흔히 中國이나 韓國詩에서 主題的 素材가 되어온 自然, 閑, 時間, 歷史, 鄉愁, 술에의 陶醉, 사랑 등이 梅月堂의 思惟와 感覺樣式을 통하여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지를 더듬어 보코자 하는 것이다.

#### 1) 自 然

몸을 山水에 내던지고 一生을 그 속에서 노닐다가 긴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自然은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文字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自身이 그의 一部가 되곤 했다. 평소 陶淵明의 詩를 좋아한 그는 淵明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自然에 깊은 의미를 賦與했다. 現實에 대한 失意가 크면 클 수록 相對的으로 自然의 不變하는 永續性 때문에 특별한 深刻性을 부여하고 悲劇的인 感情을 갖들게 했다. 다음 詩에서 그러한 梅月堂의 感覺樣式의 一端을 읽을 수 있다.

바위에 의지하여 작은 집을 세웠는데	倚岩架小廬
거우 내 한 몸 용납할 수 있겠네	僅得容我軀
떨어지는 잎으로 담요를 삼고	落葉以爲襦
삭정어로 햇대를 만들어 보았네	枯查以爲櫨
지붕은 소나무와 전나무로 하니	葺之兮松檜
방은 작지만 마음은 즐겁네	室小心愉愉
구름과 노을은 휘장이 되고	雲霞爲帳幄
푸른 산은 스스로 병풍이 되었다네	碧山爲屏風
잔나비와 새들은 짝이 되어시	猿鳥爲伴侶
나의 마음 같은 것 얻었다 하네	得我心所同
나는 방랑하는 나그네	我是放浪人
구름 물 속에서도 오히려 편안하네	夷猶雲水中

물건의 성질에도 길들여져서	物性亦馴擾
마시고 먹는 것 마른 풀에 의지했네	飲啄依枯叢
원컨대 날 추운 뒤 맹세를 맺어	願結歲寒盟
즐거운 일 더함이 없게 하거나	行樂無終窮 <sup>53)</sup>

이때에 있어서의 自然은, 멀리서 바라보는 認識의 對象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生活의 一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나그네 金時習에게는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 이상으로 비극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 現實을 拒否하는 做兀한 批評精神을 쉽게 비리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서, 自然은 또 다른 하나의 現實 對決이 이루어질 수 있는 場所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다음의 詩作은

나그네 淸平寺에 찾아 왔으니	有客淸平寺
봄 산에 올라 마음대로 놀아 보세	春山任意遊
새가 우는데도 외로운 탑은 고요하고	鳥啼孤塔靜
꽃이 지도 작은 시내는 흘러만 가네	花落小溪流
맛난 나물 질을 알아 더 한층 빼어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지나가니 더욱 부드러워	香菌過而柔
詩를 읊조리며 仙洞으로 들어가니	行吟入仙洞
백년 묵은 내 시름 살아지누나	消我百年愁 <sup>54)</sup>

閑適을 自任한 秀作이다. 모처럼 物我が 한데 어울려 無我的 地境에 이르고 있다. 그가 試에서 追求하리던 奧妙한 세계에 이르고 있는 느낌이다.

## 2) 時 間

來世를 否定하는 儒家의 現實에서는, 時間은 더욱 切迫하고 哀切한 것이 아닐 수 없다. 梅月堂의 경우에서와 같이 現實에서 安住할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現實의 有限性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 된다. 젊은 시절의 倨傲하던 意氣가 晩年の 失意로 急轉할 때, 찾아 주지 않은 歲月은 懷絶을 더해 줄 뿐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다림에 지친 自嘆이 있기 마련이다. 다음 詩에서 그 現場을 보기로 한다.

세상 일 하도 많이 변해가는데	世故屬多變
측측하게 내 마음 상하기만 하네	惻惻傷我心
아침에는 이리와 범의 집에 겁내고	朝畏豺虎關
지역에는 가지나무 덤불 피한다	暮避荊棘林
성큼 성큼 하루 해가 난아가는데	冉冉白日飛
당당하게 歲月은 늙어만 가네	鼎鼎光陰老
대장부 세상에 살아가면서	丈夫在世間
어찌하여 품은 생각 펴지 못하나	胡不展懷抱

53) 卷三「葺松檜以爲廬」

54) 卷十三「有客」

인생은 정녕 맷돌 같기 같으니	人生如磨礪
다 가는 것 만드시 그 시기 있으리	磨盡自有時
모름지기 몸가짐 삼가야 할 것	直須慎行藏
뜻이 크면 만드시 펼 기회 있으리라	志大終有期
하늘이 만약 큰 소리 못치게 하면	天如使不鳴
말이나 적어서 뒷세상에 알려라	立言要後知 <sup>55)</sup>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덧없이 흘러 보내는 안타까움으로 차 있다. 그러나 여기선 後日을 기다리는 壯歲의 雄志는 버리지 않고 있지만, 다음 詩에 보이는 晩年の 失意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自嘆으로 얼룩져 있다.

푸른 산 띠로 이은 초막 속에서	靑山茅屋裏
백발이 근심과 함께 희누나	白髮與愁并
사람을 만나도 말을 못하고	對人常不語
눈물을 닦으며 못인룬 것 틈식하네	拭淚歎無成
큰 뜻은 해마다 줄어만 들고	壯志年年減
늙은 나이 나날이 기울기만 하네	顏齡日日傾
물노라 내가 아는 몇 사람 중에	問今知幾輩
니 같이 功名이 적은 사람 있던가	似我少功名 <sup>56)</sup>

### 3) 歷 史

梅月堂에게 있어서 歷史는 強力한 認識의 對象이었다. 往古의 興亡盛衰에 눈물 짓고 歷史 속의 賢君을 追想했다. 太祖와 世宗에게 걸었던 期待가 깨어짐을 슬퍼하고 當今의 세상을 한탄했다. 이럴 때 거기에는 懷古詩가 남기 마련이다. 個人的 生命에서 느꼈던 것보다도 歷史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地上에서의 모든 것을 拋棄한 그였지만 歷史에 無關心할 수 없는 知識人의 자세는 버리지 않은 것이다.

비바람 소슬하게 낚시터를 치는데	風雨蕭蕭拂釣磯
渭川의 고기 새 세상 일 꽤 잊었더니	渭川魚鳥識忘機
어찌다가 늘그막에 난다긴다 장수되어	如何老作風雲將
끝내는 伯夷·叔齊 굶어 죽게 했던 말가.	終使夷齊餓采薇 <sup>57)</sup>

(‘風雲’은 ‘鷹揚’으로 쓰기도 함)

옛날 그와 親舊였던 徐巨正이, 찾아온 時習에게 그림 한폭을 내 보이면서 詩 한首를 付託한 것이다. 그림은 姜太公이 벼슬하기 前에 渭川에서 낚시질하고 있는 것을 그린 것이다 벼슬케나 하여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徐巨正에게는 都是 맞지도 않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는 이같이 써 갈긴 것이다. 往古의 賢人을 追想하고 當今의 세상을 嘲笑한 것은 물론이다.

55) 卷一「世故」

56) 卷十四「夜吟」

57) 卷二「嘲二釣叟」



그러나 그는 變轉하는 現實에 대한 關心보다도 歷史 속의 興亡 盛衰에 더 많이 눈물 짓고 있다. 다음 詩에서 보기로 한다.

눈 오는 밤에 등불 돋우고 역사책을 읽다가	雪夜挑燈讀史書
책 덮고 탄식하니 눈물이 흐르누나	掩編長歎涕漣洳
興亡은 有數한데 사람은 어디갔나	興亡有數人何去
治亂도 종적 없고 나는 새 간 곳 없네	治亂無蹤鳥沒處
根(난)과 嬰이 포로된 것 분하지 아니하고	不念根嬰屠就虜
操政이 편히 산 것 그대로 미워라	生憎操政耐安居
종이 조각 斧鉞이 해와 같이 분명하니	紙片斧鉞明如日
죽었으되 산 것 같이 그 냄새 남아 있네	雖死猶生臭有餘 <sup>58)</sup>

(根은 周나라 최후의 王, 嬰은 秦始皇의 손자, 項羽에게 죽음 操政은 曹操의 秦政)

#### 4) 閑

一生을 두고 별 일 없이 살다 간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閑 그것은 生活의 全部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詩에서 보여준 詩的 感覺은, 現實의인 關心과 欲望으로부터 마음을 自由롭게 가지고 그 자신과 자인이 함께 平和스러운 狀態에 놓여지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閑意가 일어났다가도 世事나 다른 事物이 끼어 들어 분위기를 흔들어 놓곤 했다. 애써 身과 世에 無關心하려 한 梅月堂은 모든 것에 대한 一切의 執念에서 超脫하여 그야말로 泰然하고 별 일 없고 생각에만 잠길 수 있는 마음의 狀態에 놓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는 그의 一身과 마찬가지로 平和스러운 狀態에 安住할 수 없는 精神世界의 彷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閑意”, “閑極”, “閑適”, “偶成”, “優成”, “謾成” 등 그의 詩作에서 보여준 그 많은 “閑”에도 불구하고 그는 完全한 閑逸 속에서 自適하지 못했다.

낙엽 쓰는 소리에 낮 꿈을 놀리 깨어	掃葉聲中夢驚驚
일어나 동쪽 산에 흰 구름 보네	起看東嶺白雲生
고기 새 저것들 마음도 취미도 없는 것이	直將魚鳥無心趣
세상 情 아닌 것 烟霞를 얻었네	剩得烟霞不世情
주렴 밖 국화 향기에 사람 情도 고요하고	簾外菊香人正靜
뜰 앞에 이끼 보니 비가 처음 개인때라	庭前苔潤雨初晴
까닭없이 슬픈 가을 興趣만 돋워 놓아	無端起我悲秋興
離騷經 암만 읽어도 마음 평안 못하여라	細讀離騷心未平 <sup>59)</sup>

이 詩는 閑適을 노래한 詩篇中的 하나다. 모처럼 일어난 閑意를 얻어 物我를 超克한 觀照의 세계로 沒入하는 듯했으나 가리울 수 없는 공연한 情感의 橫出로 그는 끝내 心的인 自安을 얻지 못하고 있다.

58) 卷一「看史傷心」

59) 卷二「掃葉」

꽃은 山中의 穉穉이요	花是山中厖
바람은 高요한 旣의  손님이다	風爲靜裏賓
술 살 돈 없는 것이 恨스럽기도 하지만	恨無沽酒債
담 넘엔 淸해 울 이웃도 없네	又欠過牆隣
대나무 언덕에선 찬바람 불어 오고	竹塢涼吹急
소나무 창에는 달빛도 새롭구나	松窓月色新
할일없이 노래 불러 도리어 破寂하니	閑吟聊破寂
이것이 道 아는 사람이랄까	箇是道中人 <sup>60)</sup>

하도 답답하여 스스로 人外人, 物外境에 놓여지고 싶었으나, 쉽게 그러한 경지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는 自身을 원망하고 있다. 그는 陶淵明의 詩世界에 戀戀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淵明의 境地에까지 이를 수 없는 스스로의 限界가 있다. 陶淵明이 만약 自然의 眞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는 自然 속의 詩人을 咏嘆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作品 속에 詩人 自身이 過多하게 露出되고 있음으로써 物我의 境界를 超脫하지 못하고 있다. 陶淵明은 眞性情에서 發露하여 傍門邪經에 出入하지 않았으므로 自然의 眞을 얻을 수 있었으며 文字 塗澤의 非를 알았기 때문에 “不工而佳”의 경지에 到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愛 情

일찌기 愛情의 세계에서 追放된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처럼 懇切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詩集 속에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없다. 그러나 그는 金鰲新話에서 裝置한 베일 속에서 일찌기 그 어떤 詩人도 到達하지 못한 사랑의 세계를 詩로써 읊었다. 그는 어쩌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金鰲新話를 製造하였는지 모른다. 달콤한 傳奇의 霧圍氣가 아니면 이러한 사랑을 體驗할 수 없었기 때문에 剪燈新話와 같은 形式을 일부러 빌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詩篇들은 대개 長篇이므로 여기서 例證하기에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 例示는 이미 前項에서 一部를 보이었으므로 그것으로 代身하고자 한다. (“詩小說의 實現”項 參照)

### 6) 鄉 愁

鄉愁 그것은,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처음서부터 있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였겠지만, 詩에 있어서는 鄉愁 感覺도 지극히 弱하거나 鈍化되어 있다. 집을 떠나면 금방 슬퍼지는 것이 人間이기 때문에, 鄉愁에 찬 詩가 나오는 것이 自然스런 일 같지만, 梅月堂은 一生을 流浪으로 보내며 凄楚한 自嘆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歸鄉을 그린 詩는 흔하게 읊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는 그는 일찍부터 歸鄉과 같은 것은 拋棄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가 오래 동안 품 두고 있었던 金鰲山이 오히려 故山이 되고 있다. 그의 氣盡한 鄉愁 感覺의 場을 다음 詩作에서 보기로 한다.

60) 卷一「悶極」

서울 땅 떠나온 지 몇해 이미 지나니	捷逃王畿已有年
고향에 가뭇은 꿈 전과 다름 없구나	故山歸夢正依然
금오산에 구름 걸히면 침침한 산뿐이고	雲收鰲背千重岫
고래 놀던 동해 바다 一葉片舟 떠 있으리	風定鯨波一葉船
보고픈 梅花는 눈 속에 아련하고	長有梅心慙眼底
파초에 비 듣는 소리 창 앞에선 못듣겠네	可堪蕉雨滴窓前
봄이 오면 죽순은 해마다 자랄 태니	春來筍歲年年長
반드시 英靈 있으면 나 돌아오기 기다리리	應有英靈待我旋 <sup>61)</sup>

그가 태어난 서울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거기 돌아가고 싶은 故山은 金鰲山이 있던 모양이다. 梅月堂(堂號) 앞에 피어 있는 梅花가 그림고 東海 바다에 떠 있는 一葉片舟가 눈에 건넜던 것 같다. 이러한 金鰲山室에 대한 미련은 다음 詩에서도 事實로 確認된다.

고향의 잔나비·학 생각은 여전하기만 하고	故山猿鶴思依然
맑은 꿈에 놀러 켜 지 벌써 수년 되었네	清夢頻驚已數年
금오산에 해 비치면 산봉우리 그림 같고	日射鰲頭峯展畫
연기가 東海에 걸히면 파도는 하늘에 넘치겠지	煙開鯨背浪滔天
스스로 병이 있어 갈 수 없을 뿐이지	自緣身病不能去
세상 생각에 다시 끌려 그런 것은 아니라오	無復世情相累牽
세모엔 갈가했더니 또 못돌아가고	歲暮欲歸歸未得
푸른 구름 가을 나무 月城이 그림네	碧雲秋樹月城邊 <sup>62)</sup>

여기서도 ‘故鄉’은 金鰲山이 있는 月城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가 태어난 서울에 대한 鄉愁 感覺은 完全히 去勢되어 있고 30代의 青年時節을 보낸 慶州 金鰲山에 대한 미련이 濃度 짙게 나타나고 있다.

7) 술에의 陶醉

詩人들은 흔히 詩人과 세상의 위치를 뒤바꾸어서 자신의 個人的인 煩悶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象徵으로서 醉를 追求하곤 한다. 평소 陶淵明의 詩를 즐겨 읽은 그는<sup>63)</sup> 和淵明飲酒詩 二十首를 쓰고 있지만 술에 의해 陶醉되고 있는 상태를 象徵的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淵明의 飲酒詩에서와 같이, 醒醉間의 境界를 寓意的으로 深化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否定的인 現實 感覺을 去勢하지 못하고 있어, 自然을 “스스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있다. 一生을 별 일이 없이 보내고서도 정작 閑에서 피어 오르는 眞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說明의 便宜를 위하여 陶淵明의 飲酒詩와 梅月堂의 和淵明飲酒詩를 비교 吟味함으로써 梅月堂이 到達한 醉鄉의 경지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61) 卷二「憶故山」

62) 卷二「懷東都」

63) 和陶淵明飲酒詩를 비롯하여 和淵明酬柴桑, 和淵明郭主簿 등 직접 淵明詩에 和韻한 것 以外에도 詩作의 到處에 流露되는 淵明에의 關心은 이우다 摘記할 수가 없다

가을 바람 왜 그리 차기만 한가	秋風何淒淒
무서리 국화 꽃에 담백 내렸네	微霜粘菊英
그 누가 국화 꽃을 주으려 하여	何人掇其英
세상 인정 훌쩍 건어 떠나가려나	脩然離世情
외로운 새 스스로 돌아올 줄 알고	獨鳥自知還
지는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졌네	落日西山傾
봉황새는 날아서 내려오지 않고	鳳鳥翔不下
까마귀만 저물녘에 다시 놀라네	昏鴉捷復驚
잠자코 또 잠잠히 그치 버리니	嘿嘿且止止
나는 벌써 평생이 넉넉하구나	我已足平生 <sup>64)</sup>

醉鄉 感覺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寓意만 露出시킨 결과가 되고 있어, 詩의 情感을 滅却하고 있다. 呑은 山林間에 던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日常的인 沒頭에서 빠져 나와 쉽게 술에 의해 陶醉되는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 淵明의 飲酒詩는 다음과 같다.

秋菊有佳色	가을 국화 色香이 하그리 좋아
裛露掇其英	이슬 깃은 꽃잎을 주워 모운다
況此忘憂物	하물며 忘憂物 이 술이란 것은
遠我遺世情	세상일 잊고픈 마음 더더욱 깊게 하네
一觴雖獨進	한잔 술 호을로 들이키지만
杯盡壺自傾	술이 다하니 단지가 절로 기울다
日入羣動息	해가 저 원 천지 숨을 죽이니
歸鳥趨林鳴	나는 새도 돌아와 숲에서 운다
嘯傲東軒下	등쪽 처마 끝에 거리낌없는 몸이 되니
聊復得此生	다시금 사는 의미 깨닫게 되네

“秋菊有佳色”에서 볼 수 있는 韻詩의 妙는 우리나라 詩人들이 원래 攄得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終篇의 “嘯傲東軒下 聊復得此生”에서 보여준 高遠한 寓意는, 眞性情의 流出이 없이는 到達하기 어려운 境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4. 批評的 接近

宋 倪思의 말을 빌리면, 文章은 體製가 먼저고 精工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文章以體製爲先 精工次之)<sup>65)</sup> 明, 陳洪謨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文章英先於辯體 體正而後 意以經之 氣以貫之 辭以飾之 體者文之幹也 意者文之帥也 氣者文之翼也 詞者文之華也<sup>66)</sup>

64) 卷八, 「和淵明飲酒詩」其七

65) 徐師曾, 文體明辯 卷首

66) 同上

그러나 이러한 文章의 綱領에도 不拘하고 梅月堂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事情을 달리 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文章은 詩의 概念도 包含되는 것임)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위하여 詩를 하는 浪費를 일삼게 된 그에게 있어서는 體製와 같은 것은 처음 서부터 먼 거리에 있었는지 모른다. 평소 陶淵明의 詩를 즐겨 읽은 그는 淵明의 경우처럼 己往의 體製에 대하여 애써 拒否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體製에 대한 그의 關心이 疎遠했던 것만은 事實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의 詩篇 속에 나타나고 있는 自身の 말을 들 어 보면 사실로 드러난다.

但看其妙處  
莫問有聲聯<sup>67)</sup>

我願得其妙  
不勞空哦<sup>68)</sup>

가 그것이다. 詩는 그 妙處만 보면 되는 것이며 聲聯과 같은 것은 論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發言은, 梅月堂의 詩世界에 대한 後代의 批評과도 대체로 그 方向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後代人の 視角을 檢證하는 것은 곧 梅月堂의 詩世界에 接近하는 중요한 作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차례로 보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李紆는 그의 梅月堂集序에서

그 詩의 된 것이 浩蕩해서, 밀물인듯 쓸물인듯 연기인듯 구름인듯 바람을 묻고 비를 호령하며 노 하여 꾸짖고 기뻐 웃는 것이 모두 다 詩가 되었지만, 聲律에 拘束되지 않으면서도 法則이 문란하지 아니하고 修飾에 애쓰지 아니하되 큰 보석처럼 더욱 아름다웠다……①

(其爲詩浩蕩 朝夕烟雲 驅風雷而 怒噴喜笑 皆成句語 不規於聲律 而典章不紊 不刺刺於詞華 而大璞愈麗)

고 하였으며, 같은 梅月堂集序에서 李山海는

그가 詩를 짓는 때에는 自己 性情에 根本하여 읊고 나타냈으므로 애써서 꾸미지 아니하였어도 지연히 詩가 되어 긴 노래든가 짧은 詩가 나올수록 窘拙하지 아니하였다 … ②

(其爲詩也 本諸性情 形於吟咏 故不事鍛鍊繡繪 而自然成草 長篇短什 愈出而愈不窘)

고 하였다. 그리고 梅月堂의 傳記를 쓴 尹春年과 李珥도 각각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먼저 尹春年의 것을 보면,

선생이 詩學에 대하여 餘事라고 했지만, 그러나 格이 높고 생각이 오묘하다 (先生雖於詩學爲餘事 然格高思妙) ③

라 하였고 李珥는

聲律과 格調에 있어서는 심히 생각지 않았으나 그 奇警한 것은 생각이 높고 먼데까지 이르고 있어

67) 前出 卷四「學詩」

68) 前出 卷一「戲甚走題」

보통 사람의 생각보다는 뛰어나고 있으니, 雕篆하는 者가 가히 받돋음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聲律格調 不甚經意 而其警者 則思致高遠 迥出常情 非雕篆者所可跋望)

라 하였다. 이 밖에도 南龍翼이 壺谷詩話에서

金梅月之神遊……⑤

이라고 한 것이있고 任璟이 그의 玄湖瑣談에서

金時習 銀樹霜披 珠臺月舁 ……⑥

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批評的 銳角에서 梅月堂의 詩를 論한 이는 許筠이다. 그는 그의 惺叟詩話에서

金時習은 높은 절개가 우뚝하여 짝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詩文도 모두 超邁하여 장난삼아 힘들이지 아니하고 하였으므로 그 끝에 가서는 매양 난잡하고 俚俗의 말이 많다. ……⑦

(金悅卿高節卓爾 不可尙己 其詩文 俱超邁 以其遊戲 不用意得之 故強弩之末 每雜蔓 語張打油 可厭也)

라 하여 그 正鵠을 찌른 느낌이다.

이상을 綜合해 보면, ①②③④⑦에서 共通的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첫째 梅月堂에게 있어서는 힘들이지 않고서도 天成으로 詩作이 可能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그 생각이 높고 멀어 超邁 奧妙한데가 있었다는 것이다. ⑤⑥의 批評도 같은 方向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니 이 두 方向을 다시 정리해 보면 前者는 詩作에 있어서 初步的인 作詩修業의 論證에서 그치고 있을뿐 本格的인 作品論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陶淵明이 “不工而佳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다른 次元에 있다. “不工” 즉 공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 과, “不用意” 즉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것은 서로 그 세계를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後者의 경우는 흔히 東洋의 詩學에서 追求하던 理想論으로서, 대개의 경우 이는 詩人 自身의 人格과 直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본 諸家의 批評感覺은 本格的인 作品論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詩作 評價의 普遍的인 基準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印象批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詩作에 있어서 視覺的 聽覺的 效果와 같은 것이 考慮되지 않은 梅月堂의 詩에 있어서는 詩作의 全篇을 가늠히는 體製와 같은 것은 말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叙上한 批評의 두 方向에 따라 그 作品을 檢證해 보면 내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例示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녁 되자 산빛이 하도 좋아서  
옛 역 다락에 올라 보았네  
말이 우니 사람은 멀리로 가고

向晚山光好  
登臨古驛樓  
馬嘶人去遠

물결 심는 노젓는 소리 부드럽구나	波嚙棹聲柔
유공(庾公)의 흥치도 알지 않는데	不淺庾公興
왕잔(王粲)의 시름도 가지지 않네	堪消王粲憂
내일 아침 관문 밖에 나갈 때에는	明朝度關外
구름 가에 여러 봉우리 뉘뉘 하리라	雲際衆峰稠 <sup>69)</sup>

全篇을 통하여 雕琢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흐름이 自在하여 窘拙하지 않다. 終篇에서 보여준 油然한 意境은 雕篆을 일삼는 者가 감히 발돋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맥국에 처음으로 눈이 날리니	貂國初飛雪
春城의 나무 잎이 들성해졌네	春城木葉疎
가을 깊어 마을에는 술이 있는데	秋深村有酒
손 노릇 오래 하니 고기 맛을 못보겠네	客久食無魚
산이 멀매 하늘은 들에 드리우고	山遠天垂野
강이 머니 매지는 허공에 붙었네	江遙地接虛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가니	孤鴻落日外
나그네의 말 밤굽 머뭇거린다	征馬政躊躇 <sup>70)</sup>

廣遠한 경지를 自覺한 詩篇이다. 超邁한 그의 詩作이 모처럼 이룩한 成果라고 하겠다.

이상은 梅月堂의 詩世界를 檢證하는 노력으로서는 그 一齣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梅月堂의 詩에 있어서는 그 批評的 接近이 처음서부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그는 마음을 쓰지 않고 詩를 하기 때문에 體製와 같은 것은 처음서부터 틀려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重視해야 할 意・氣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사실상 말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外景만 描寫하고 情이 없는 詩가 많은가 하면 모처럼 立意가 이루어졌다가도 이것이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作品 속에 詩人 자신이 無節制하게 露出되거나 現實的 批評感覺이 過多하게 流露되는 이것들이 그의 詩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例實은 이미 앞에서 試圖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다.

## 5. 結 言

지금까지의 梅月堂에 대한 研究가, 傳奇集 金鰲新話에 集中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나 이러한 金鰲新話에 대한 執着은 결국 傳奇集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限界 때문에 그 壁에

69) 卷十三「登樓」

70) 卷十三「途中」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脆弱點을 克服하기 위하여 企圖된 思想 論證은, 事實과 虛構를 같은 次元에서 照鑑하는 施行錯誤를 거듭함으로써 文學理論의 不在라는 自責을 免할 수 없게 되었다. 本稿의 企圖는 바로 이것에 대한 留意에서 출발한 것이다. 梅月堂集에 버려져 있는 詩篇을 收拾하여 梅月堂의 研究에 새로운 方向을 摸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梅月堂이 이룩한 詩的 表現을 통하여, 詩 말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詩를 쓰게 된 詩的 動機를 보았으며, 詩를 통하여 自己 實現을 일삼고 있는 詩 속의 梅月堂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山水에 몸을 맡기고 一生을 放浪으로 始終하면서, 詩를 통하여 그의 精神的 價値를 實現하려 한 梅月堂이 였지만, 現實을 拒否하는 傲兀한 그의 批評 感覺 때문에 自然과 그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維持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一部가 되곤 하였으므로 거기에는 悲劇的인 感情이 깃들기 일쑤였으며 그러기 때문에 그의 詩는 自嘆을 일삼는 限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漢詩의 詩語 가운데서 가장 常識的인 表現으로 나타나고 있는 思惟와 感覺樣式을, 그의 詩에서 主題의 素材가 되고 있는 自然, 時間, 歷史, 閑, 鄉愁 등을 통해서 보면, 日常的인 沒頭에서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하는 그의 現實感覺이 언제나 醒醒하게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詩로써 實現한 傳奇集 金鰲新話를 통하여, 그는 그에게서 가장 缺乏되고 있었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傳奇라는 틀을 빌려 일찌기 우리나라 詩人中에서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였다. 南炎浮洲志를 除外한 4篇은 艷情詩로써 채워져 있는 것이 그것이다. 儒家의 教養에서 分明히 그 境界를 犯越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梅月堂의 또 다른 모습을 읽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처음으로 企圖해 본 梅月堂의 詩에 대한 批評的 接近은 그의 詩에 內在하고 있는 基本的인 문제의 限界 때문에 그 成果는 滿足한 것이 되지 못했다. 그는 힘들여 詩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漢詩에 있어 가장 重視해야 할 體製 문제를 外面하고 있으며, 詩人 自身이 作品속에 過多하게 露出됨으로써 그의 意境이 達意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 要因으로 指摘될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學界에서 企圖한 漢詩研究는 그 大部分이 思想 論議로 一貫해 왔을 뿐 漢詩 自體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本稿의 試圖는 이런것을 追求하는데 보다 積極的인 意味가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學界가 克服해야 할 主要한 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Kim Si-sŭp's Poetic World

Byong-su Min

Kim Si-sŭp is the author of *Kumo Sinhwa*, a collection of fictional works, which is known to b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Most of scholarly researches have so far been concentrated on this work, and the critics have paid specific attention to his ideas manifested in these collected tales.

This paper was written on the assumption that any research on Kim Si-sŭp can't be satisfactory if the researcher ignores the significance of the two thousand two hundred poems collected in his complete work.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Kim Si-sŭp formed a unique world of his own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the present writer attempts to open a new field in the Kim Si-sŭp studies.

A born poet, Kim Si-sŭp made his name known to the world at the juvenile stage of his literary career. When he realized that his political ambition had been ruthlessly frustrated after the *coup d'état* by King Sejo, he turned his back to the world to seek pleasure in wandering and poetic composition. As he had nothing to do but writing poems, poetry meant everything to him. To him in a certain sense the act of writing poems was in itself poetry. Poetry was the only channel available to him through which he could speak about himself and the world. In other words, poetry was the only means by which he could realize himself.

The paper discusses Kim Si-sŭp's life and work through an elaborate study of his poems, with specific references to his peculiar mode of thinking and feeling in the poetic diction and to such recurring themes as nature, time, history, leisure, and nostalgia. The present writer also made a new approach to *Kumo Sinhwa* by regarding these collected tales as a work of art through which Kim Si-sŭp attempted to realize his idea of love.